

## 본당 소식

### ♣ 부활시기 때 전례에서 바뀌는 부분

- “신앙의 신비여”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 밀라노 한인성당 성가대 정기 연주회

- 제목 : 「Mano Nella Mano」, 손에 손잡고
-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15:30
- 장소 : 고타르도 성당(Chiesa di San Gottardo al Corso)

### ♣ 모임/회의

- 성모회 회의 : 4월 26일 (오늘), 미사 후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9.71€ • 교무금 520.00€

###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전례 성가

- 입당 : 55 (착하신 목자)
- 봉헌 : 221 (받아주소서)
-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 :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 전례 봉사

이번 주일(4월 26일)	다음 주일(5월 3일)
1독서 : 윤세희 보나	1독서 : 서인복 리노
2독서 : 남궁형 미카엘	2독서 : 류정연 릿타
복 사 : 강윤이 스텔라 / 정이한 다윗	복 사 : 문수빈 미카엘라 / 정아인 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4월 26일

(백)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 제1독서 (사도행전 2,14ㄱ.36-41)

오순절에,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36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37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40 베드로는 이 밤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 2,20ㄴ-25)

사랑하는 여러분,

20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21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23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25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복음** (요한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3. 성소 주일을 맞아,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키워 나가게 하소서.

4. 하느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받은 성소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 떼를 인자로우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